

<2022년 3월 27일 주일말씀>

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이다

[시대 성경]

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이다.

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과 성자와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리라.

하나님 천지창조의 목적은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.

그의 뜻은 우리를 사망에서 이끌어 내어 사랑하사

그 사랑으로 그 목적을 이루고,

우리의 영과 혼을 사랑하사

영원토록 황금 천국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심이니라.

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여,

하나님과 성령님을 더 사랑하고 영원한 기업을 뺏기지 말지어다.

그의 뜻을 행하니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느도다.

[요한복음 15장 9-10절]

9.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,
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.

10.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,
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.

- 우리는 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을 배우고,
확실하게 알고 살고 있습니다.
- <하나님의 목적>과 <우리의 목적>은 같으니,
하나님도, 성령님도 항상 우리를 돕고 함께해 주십니다.
- 하나님은 어느 시대, 어느 역사든지
<자신의 목적대로 사는 자들>을 ‘전지전능하신 능력’으로
돕고 함께 행해 주십니다.

그러나, <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자들>은
‘그 뜻’을 이루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.

- 하나님은 <천지를 창조하신 태초>부터 <지금>까지,
<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역사>를 해 오셨습니다.

따르는 자들의 수가 아주 적었던
<노아 때>도, <아브라함 때>도, <요셉 때>도
‘중심인물을 따르는 자들’만 돕고 행하셨고,

<나머지>는 ‘자기 행위’대로 살아가니,
행위대로 갚아 주며 행하셨습니다.

그러다가 신약 때 와서는 <예수님>을 통해
<하나님의 목적>을 점점 세계적으로 이루셨습니다.

- 지금 이 시대도 <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아는 자들>을 통해

역사를 계속해서 펴 나가십니다.

〈하나님의 목적을 행하는 자들〉에게는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항상 함께하여 사랑해 주시니,
〈그 육〉도 〈영〉도 ‘삼위의 몸’ 이 되어 굳건하게 행합니다.

- 하나님은 〈창조 목적〉을 이루기 위해
‘천군 천사’ 를 총동원하여 행하십니다.

〈그 목적〉 때문에 ‘천지 만물’ 과 ‘인간’ 을 창조하셨기에,
‘어떤 일’ 이 있어도 정녕코 행하십니다.

- 〈사탄〉은
처음부터 〈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〉을 거역했으므로
〈전능자 하나님의 주권권〉에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.

- 〈전능자 하나님〉은
‘자신의 창조 목적을 위해 사는 자들의 편’ 이십니다.
‘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이 아닌 것’ 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.

- 〈세상의 어떤 것〉보다도
〈하나님의 목적〉은 정녕코 이루어져 갑니다.

그러므로 〈그 목적 안〉에 속해서 벗어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.

- 하나님은 〈창조 목적〉만을 향해

구약 때부터 점진적으로 역사해 오셨습니다.

구약 때 <모세>를 통해 1차로 이루셨고,
신약 때 <메시아 예수님>을 통해 2차로 이루셨고,
이 시대도 <하나님이 보낸 자>를 통해 3차로 이뤄 가고 계십니다.

- <섭리역사>는 ‘사람의 역사’가 아니고,
‘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역사’입니다.

<이 믿음>에 굳건하게 서서
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’와 함께 행해야 됩니다.

<의심 없이 믿는 자>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.

- <하나님이 지난 43년 동안 행해 오신 섭리역사>는
<현재>도, <미래>도 영영히 이루어져 갑니다.

우리는 하나님 안에,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체 되어
<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>을 행하며 가십니다.

<성령님>은 갈수록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며
‘우리의 몸’을 쓰고 행하십니다.

- 그러므로 <머리의 할 일>은 ‘머리’가 하고,
<지체들>은 각각 ‘자기 할 일들’을 뭉쳐 행하며,
<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>을 이뤄 가야 됩니다.

- 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은 천 년 동안, 영영히 이루어져 갑니다.
- 올해는 <기도와 말씀의 해>입니다.

이를 잊지 말고,
 항상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심정>을 알고 기도하고,
 <시대 말씀>을 듣고 ‘하나님의 창조 목적’을 위해 행하며,
 ‘삼위’를 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.

<마음과 뜻과 목숨>을 다해
 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’를 사랑하고, ‘형제’를 사랑하며,
 ‘생명의 역사’를 굳세게 이루며 가야 됩니다.

- <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>를 따라 ‘그 뜻’을 이뤄 가다 보면,
 ‘어려움’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.

그 어려움은 <자기>로 인해 오기도 하고,
 <다른 사람>으로 인해 오기도 하고,
 <주변 환경>으로 인해 오기도 합니다.

그러나, <어려움>이 있을수록
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더 사랑하고, 더 행해야,
 ‘더 이상적인 세계’가 이루어집니다.

<지난날>을 생각하며 담대하게, 굳세게 살아야 됩니다.

<삼위를 더 사랑함>으로
 <사랑>으로 ‘모든 어려움’을 이겨야 됩니다.

- <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목적>을 잊으면,
우리는 <삶의 목적>을 잃게 되고,
‘목적’ 이 없으니 방황하게 됩니다.

- <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삶>이 <우리의 삶>이 되어,
날마다 더 차원 높여 살아가야 됩니다.

<창조 목적>을 잊으면,
<삶의 기쁨>도 <희망>도 잃게 됩니다.

- 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을 다른 말로 하면,
 - <하나님>을 ‘자신의 하나님’ 으로 삼고 사랑하며,
<하나님과 성령님>과 함께 ‘그 일’ 을 하며 사는 삶입니다.
 - 이와 같이 <삼위>를 사랑하며
‘육신 일생, 영은 영원무궁토록 사는 삶’ 입니다.

- 우리가 생활 가운데 ‘어떤 일’ 을 하더라도
<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>을 생활 속에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.

<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>을 살지 않을수록,
‘우리의 희망’ 과 ‘소망’ 과 ‘힘’ 이 약해집니다.

- <어떤 일>이 있어도 삼위를 ‘더 사랑’ 하고, ‘더 충성’ 하며,
<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>을 열심히 살라고

하나님과 성령님이 오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

- <하나님과 성령님 안>에 속해 있으면,

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어도

<잠수함 속에 들어가 있는 것>과 같고,

<큰 군함 속에 들어가 있는 것>과 같습니다.

- <하나님의 역사>는

비가 오나 눈이 오나, 바람이 부나 풍랑이 오나,

‘단 1초’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.

- <절대 믿음의 신앙>입니다.

<그 믿음의 터전 위>에

‘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’이 함께 행하십니다.

- <말씀을 믿고 행함>이 ‘힘’이요, ‘능력’이요, ‘기쁨’입니다.

- 그 주일마다

<하나님이 주시는 말씀>을 절대적으로 듣고 행해야 됩니다.

<그 말씀>을 못 받으면, ‘갈 길’을 잃습니다.

- 하나님은 <자신의 목적>을 이루실 때마다,

<그 시대, 혹은 그 때에 해당되는 말씀>을 주십니다.

〈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함〉으로
〈하나님의 목적〉이 이루어져 갑니다.

그러므로 모두 〈하나님이 시대에 주신 말씀〉을
많이 보고, 많이 행해야 됩니다.

- 기도하면, 〈상에 음식이 차려 있는 것〉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.

〈음식〉은 ‘말씀’입니다.

‘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의미’입니다.

- 예수님은 〈말씀〉을 ‘떡’으로 비유하시며,

“나는 생명의 떡이니,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요,
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.” 하셨습니다.

- 선생님의 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〈음식〉을 먹고 있는데,
‘한 사람’만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.

그 사람에게 왜 먹지 않느냐고 물어보니,
이 음식을 누가 줬는지 몰라서 안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.

그래서 〈하나님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준 음식〉이라고 하니,
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.

- 〈하나님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떡〉을 먹어야,
- ‘소생’ 하고, ‘영생’ 합니다.

- ‘하나님과 일체’ 됩니다.

- <음식>을 잘 먹고 소화해서
<일>을 부지런히 해야 ‘육신’이 건강해지듯이,
<신앙의 세계>도 그러합니다.

<하나님의 말씀>을 잘 듣고 소화해서
<하나님이 맡기신 일>을 부지런히 행해야 ‘신앙’이 건강해집니다.

- <많은 말씀>을 듣기보다,
<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 말씀>을 ‘뇌 속’에 넣고,
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.
- 또한, <하나님이 주신 새 시대 노래>을 늘 불러야 됩니다.

<찬양의 가사>가 ‘말씀’이고,
<찬양>이 ‘곡조 있는 기도’입니다.

<찬양>은 ‘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’입니다.

- <말씀>과 <기도>에 충만하여
‘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’을 살며,

<주 하나님의 사랑>과
<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과 함께하심>을
절대 믿고 행하기를 축원합니다.